

사회 위기와 교회의 정화

한 동안 가짜 학위 문제로 별집 쫓시는 듯한 여론이 갈아앉은 뒤, 우리 사회 안에서 판을 친 가짜 식품의 제조 실태가 보도되자,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가짜 때문에 침식을 당하고 있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이제는 가짜의 형태를 통찰하는 일조차 송구스러울 정도로 우리의 삶 자체가 가짜를 터진으로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 뿐만 아니다. 정국의 긴장과 학생들의 태도가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고급, 하급 공무원들의 무시무시한 부패가 매일 같이 보도되어서 오늘의 우리 현실을 마치 썩은 뿌리를 가진 아름다운 꽃과도 비길 수 있을 것 같다. 국제 정세가 급격히 전환하는 틈을 타서 북괴는 호시탐탐 이 나라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참으로 위태롭고도 아슬아슬한 긴박감이 감돌고 있는 것이다. 경제 건설이니 근대화니 하고 떠드는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처럼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이 나라의 안팎에 번져가고 있는 것이다.

민족의 양심 구실을 하고 사회 정의를 확립하여야 할 교회는 과연 어떠한가?

사분 오열로 갈라진 교회도 주도권 다툼에 날을 새우고 조그마한 감투로 운명과 앞날에는 아랑곳 없다는 듯이 세월을 보내고 있다. 교회 지도자들의 근시안적 알력과 정치 투쟁, 그리고 부패를 누워 칠 줄 모르는 거만, 불손한 권위주의 의식이 아직도 우리 교회의 정화를 가로 막고 있다. 빈곤에 허덕이는 농촌과 도시의 변두리의 국

민들은 물질적인 갈급에 못지 않게 정신적인 구원을 희구하고 있다. 이러한 동포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보다 저주를 받을 교회일 것이다.

사회의 위기에 둔감한 교회는 결국 폐쇄적인 집단으로 전락되어, 아무런 생명적인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세계를 향해 내뻗는다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한 마디 해야 할 것이다. 민족과 사회의 위기를 부르짖으면서 오히려 교회의 평화나 발전에 역행하는 소위 에큐메니칼 장사꾼이 있다는 것을. 장사꾼이라고 해서 김포 비행장을 보따리를 들고 드나드는 장사꾼이라는 말은 아니다. 술한 국제회의에 참석하면서 이 나라의 교회 배경으로 이국의 원조를 받아 회사를 세우고 책을 출판하고 하면서도 교회 전체가 쪼어진 한국적인 과제에는 눈을 감는 장사꾼을 말하는 것이다.

저들의 휴대품은 깨끗하지마는 그 마음씨는 장사꾼의 마음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인지 조금이라도 그들이 계획하는 일이 위협을 받으면 한국 교회의 분열을 과대 평가하며 이용하여서 어부지리를 띄우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사회가 직면하는 위기를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우리 교회의 사명을 더 무겁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책임을 무겁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교회 자체 안의 지도자들의 무력과 아집에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상습적으로 하면서 가짜를 개탄하는 지도자들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면서도 속으로는 장사꾼의 이해 관계에 제빠른 에큐메니칼 처세자들이, 오늘의 한국 교회의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다면 어떻게 오늘의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저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오늘의 현실을 개탄하면서도 약간의 희망과 위로를 받는다. 그것은 이처럼 암담한 교회의 현실 속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의 찬송과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일까? 참으로 이 나라의 현실과 앞날을 걱정하고 호소하는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고 또한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생존을 허락하시는 전능을 찬양하는 소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진정 이 나라와 이 교회를 걱정하는 진정한 지도자들이 힘을 결속하는 일이다. 모든 신조와 이해를 넘어서 현 시국의 실태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고차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들의 힘을 모으는 일이 정말로 절실히 요청된다. 그리하여 공정하고도 용기가 있는 말과 입장을 밝히고, 이 입장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만 할 것이다.